

취약지역 공모 10년 연속 선정

임실군, 도내 유일 대기록... 생활여건 개조사업 양지마을·내량마을 선정

임실군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올해에도 2개 마을이 선정, '도내 유일 10년 연속'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신청한 청웅면 양지마을과 신덕면 내량마을 두 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공모사업이 없었던 2018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5개 마을이 선정되며, 농촌 마을 대상 사업에 대한 탁월한 공모 실력을 입증했다.

지금까지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2015년 임실을 감성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운암면 쌍암마을 △2017년 관촌면 방현마을 △2019년 임실을 갈마마을 △2020년 임실을 연화·청웅면 발산마을 △2021년 오수면 한암마을 △2022년 강진면 신기·덕치 가곡마을 △2023년 관촌면 슬치·강진면 백련마을 △2024년 지사면 관기·오수면 주천마을에 △2025년 청



신덕면 내량마을 전경

웅면 양지마을·신덕면 내량마을까지 총 1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같은 성과는 고품격으로 피해가 없는 임실군 농촌 마을 주거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개조하는 사업이다.

노후주택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 재래식 화장실 개선,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들이 최소한 누려야 할 정주 여건 인프라를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올해 선정된 청웅면 양지마을은 '모두가 하나되어 행복이 피어나는 따뜻한 양지마을' 비전을 토대로 안전이 하나된 양지마을, 깨끗하고 행복한 양지마을, 생기 넘치는 양지마을을 구상, 계획을 수립했다.

신덕면 내량마을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내량마을' 비전 아래 쾌적한 마을, 안전한 마을, 안락한 마을, 함께하는 마을을 마을 상황에 맞게 재각색했다.

이들 2개 마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되며, 그동안 열악한 마을의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의 취약지역 공모사업 10년 연속 선정은 주민들의 자랑스러운 자리가 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철저한 공모 대응을 통해 11년 연속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으로 청년인구 유출 막는다

순창군, 15억원 투입... 월 15만원 적립하면 2년 후 만기 시 1080만원 수령

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면서 핵심공약 중 하나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데 적극 나섰다.

특히, 군은 종자통장의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려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층으로부터 폭발적 반응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5일 지원사업의 대상자 594명을 최종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대상 연령은 18세부터 49세까지의 청년근로자다.

청년근로자들의 자산 형성과 근로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맞춤형 보편적 복지 정책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그 두배 금액을 지원해 2년 후 큰 종자돈을 마련해 주는 순창군 핵심지원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과 금액



을 확대시켜 사업 신청 당시인 지난 5월 무려 1,282명이 신청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지난해 370명 신청과 비교해 912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594명 중 400명은 올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청년들이며, 나머지 194명은 지난해부터 종자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중 추가 지원을 받게 된 인원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신규로 선정된 청년근로자 400명에게는 매달 15만원을 적립할 경우 군에서 30만원씩을 2년 동안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만기 시 총 1,080만원과 전복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참여자 194명에게는 추가 혜택

이 주어진다. 기존의 월 10만원 적립에 20만원 지원 외에도, 월 50만원을 추가 적립하면 군에서 10만원을 더 지원해 최종적으로 올해 신규 참여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선정된 335명과 올해 신규로 선정된 400명 등 총 735명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8~19세 3명 △20~29세 118명 △30~39세 281명 △40~49세 3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들은 적립을 위한 계좌 개설 후 오는 8월부터 적립을 시작하고, 2년간 주소 및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군의 지원을 통해 2년 뒤에 종자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는 7월 18일에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준 청년근로자들에게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타지역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대한민국 인물 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 수상

최영일 순창군수(사진)가 지난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출입기자클럽과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최하고 (사)한국SNS신문방송인클럽, (주)국회출입기자클럽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을 한 인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상을 수상한 최영일 군수는 매년 연초마다 320개 전체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설명회, 영농현장 방문, 주요사업장 방문 등 적극적인 주민소통과 현장행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동행복수당, 농업기본소득, 대학생생활지원금, 청년종자통장 등 순창형 보편적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농촌유학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 실적이 두드러지는 점 등도 이번 수상에 크게 작용했다.

또한, 최 군수는 취임 이후 경천·양



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 순창 특화 음식 개발, 치유관광지 기반 조성을 비롯해 기업 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을 살려 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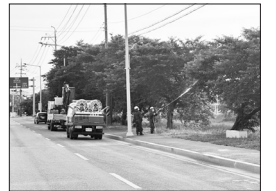
이 밖에도 △농촌사랑 동행순창 등 도농교류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특화 소득작물 육성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노인일자리 3,000개 확대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를 통해 군정 5대 목표인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건설을 적극 추진해 지방소멸위기 속에서도 순창군이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큰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했다.

최영일 군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민선8기 2년 동안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오가며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는 강천산 온자실 치유관광지와 서부권 관공제지시설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대표 관광지라는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관광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돌발 해충 선제적 방제 나선다

남원시가 생활권에 유입된 미국원불나방 등 돌발 해충 방제를 9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원불나방은 뽕나무, 버즘나무 등 대부분의 활엽수를 가해하는 식염성 해충으로, 지구 온난화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하여 전국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회기 심층 우화 시기보다 2회기 피해가 심한 만큼 남원시는 초기 집중 방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기준 요천로 외 16개소(95.8km)에 가로수 피해 정도에 따라 7~10일 간격으로 약제를 2~3회 살포 완료하고, 피해목에 대해서는 수피, 잎 등에 농약안전사용기준(PLS 제도) 통과한 약제를 살포하였으며,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시가지 중심으로 방제를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통합 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

남원시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결과와 우수사례에 대한 시·도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남원시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올해 포상금 800만원)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과 만성질환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지역의 건강 수준을 다양한 자료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내·외부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2월 중 본격 운영

남원시는 오는 11월 시 처음으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가 신규 도입해 이 12월 중에 본격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상버스는 기존 버스에 비해 바닥면이 낮고,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이며, 전기를 사용해 소음과 매연 방지도 도움이 된다.

남원시는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통해 운행 가부를 판단하고 장기적으로는 28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이며, 전기를 사용해 소음과 매연 방지도 도움이 된다.

남원시는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통해 운행 가부를 판단하고 장기적으로는 28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노인 임플란트 예산 늘려 대상자 증가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임플란트 수술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연초 조례 개정을 통해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한 수술기관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대비 급격히 증가한 지원자 수로 인해 사업이 조기 마감되자, 군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거쳐 8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총 예산을 2억 4천만 원으로 늘렸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이며 임플란트 한 개당 50만 원, 1인당 최대 두 개까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N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